지구촌 양계뉴스

EU
닭고기, 돼지고기 개방 요구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 EU FTA 2차 협상에서 EU측이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닭다리)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

EU측은 우리 협상단이 개방안을 내놓지 않은 250개 농축산물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EU측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에 대해 22.5%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프랑스와 벨기에는 1억 2천만 달러 어치의 돼지고기를 한국에 수출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3차 협상은 오는 9월 브뤼셀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 YTN

미국
AI 계획에 대한 리포트 발표

미국은 많은 나라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고 감시하도록 도와왔지만 미국내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신속 검사와 병원수용력이 부족하다고 지난 7월 17일 백악관이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일년 전에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 계획에 대한 성적리포트(Report card)를 발표했으며 수 백가지의 임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질병의 확산을 신속히 검출하는 능력, 백신을 신속하게 만드는 능력, 충분한 예산 그리고 만일 전국적으로 유행했을 경우 누구에게 약과 백신을 줄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 로이터

중국
폐사한 닭 식용으로 판매

중국에서 병 들어 폐사한 닭이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광둥(廣東)성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남방주말(南方周末)이 지난 7월 19일 보도했다.

남방주말은 장가오밍(蔣高明) 중국과학원 연구원이 2005년 7월부터 베이징(北京)시, 산둥

(山東)성,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등의 양계농가들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양계농가들이 각종 질병으로 폐사한 닭을 마리당 2~3위안(약 240~360원)씩에 전문 유통업자에게 팔고 있다.

폐사한 지 얼마 안 된 닭은 통구이용으로 판매되고, 상당기간이 지난 닭은 부위별로 잘라 팔린다고 장 연구원은 밝혔다. 가금류 전염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폐사한 닭도 소각처리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남방주말은 전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우리 검역당국이 위생검사 등을 거쳐 선정한 중국의 20여 개 공장에서 열처리 가공된 닭고기만 수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 미국산 육류 일부 수입중단

중국이 미국산 닭다리, 돼지갈비 등 일부 육류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수입중단을 발표해 식품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전면전에 나섰다.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지난 7월 10일 홈페이지 통보문에서 "세계 최대 육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 등 미국 7개 업체 닭다리 · 돼지갈비 등 일부 육류제품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질검총국은 이날 타이슨푸드의 냉동 가금류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됐으며 샌더슨팜스의 냉동 닭다리에서는 항생 잔류물질이 검출됐다고 수입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카길 미트 솔루션이 수출한 냉동 돼지갈비에서는 육질개선 첨가물인 락토파민이 검출되는 등 중국 식품안전기준에 불합격해 모두 7개 회사 제품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10일 "미국 스텀푸드가 중국에 수출한 음료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돼 반품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질검총국은 지난 7월 13일 '일본 · 독일 · 캐나다 · 호주 · 네덜란드 ·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식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돼 중국식품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된 14개 통보문을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국가질검총국이 수입식품 검사불합격 통보문을 이처럼 하루에 14개씩 무더기 공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들 식품 검사불합격은 올해 4~6월 중 이뤄진 것이다.

이는 중국산 수출식품이 전 세계에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 일본 · 독일 등 다른 주요 국가들 수출식품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산 수출식품 99%는 검사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강조해온 중국이 그동안 수세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맞불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셈이다.

국가질검총국이 이날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검사 강화를 예고한 제품은 미국산 건포도 · 벌꿀 제품 · 보건식품, 일본산 조미료용 어분 ·

코코아분말, 캐나다산 보건식품, 호주산 유제품, 이탈리아산 브랜디, 독일산 포도주 등 10여 개국 제품에 이른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90일 동안 검사샘플을 20% 확대하는 등 통관검역 강화조치를 받게 된다.

중국산 수출식품을 둘러싸고 '안전성 공포'가 빚어진 것은 지난 3월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애완동물 사료에서 인체에 유해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되면서부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자 독성 치약문제가 불거졌고 최근에는 수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항균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중국식품 안전성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미국은 메기, 황어, 장어, 새우 등 중국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폭넓게 제한했고 전 세계로 '중국식품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달 초 중국산 치약 수백만 개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고, 말레이시아는 치약을 위주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필리핀은 국수와 사탕, 어묵 등 중국산 식품 수입 검사 기준을 끌어올렸다. 이탈리아 농민연맹(콜디레티)은 지난달 '이탈리아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토마토로부터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산 양념, 저장식품, 통조림, 토마토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은 자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했다.

국가질검총국은 지난 7월 4일 "식품을 포함한 114개 분야 7,200여 품목 가운데 19.1%가 수준 미달로 나왔다"며 한발 물러섰고 이에 앞서 산업용 화학품과 첨가제를 식품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된 180개 식품제조업체를 폐쇄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리창장 질검총국 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도 많은 경우 수준 미달임을 탐지해왔지만 중국 측이 항상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며 "미국도 우리 제품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WHO
아시아, AI 경계태세 높여야

인체에 치명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만연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은 AI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 고위관리가 지난 7월 3일 경고했다.

WHO 서태평양지역 본부장인 시게루 오미 박사는 이날부터 4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회의에 참석, "아시아 각국이 AI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는 필연코 바이러스의 인간 대 인간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미 박사는 "아직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 AI 바이러스가 인간 대 인간 전염형태로 변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명이 AI에 감염돼 이중 80명이 숨져 세계에서 AI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에서도 1년 만에 AI가 재발해 동남아 각국이 AI 확산에 비상이다.

WHO 집계에 따르면 2003년말 아시아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10명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이중 19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WHO는 특히 AI 바이러스가 인체 간 감염형태로 변종을 일으킬 경우 수백만 명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 방콕=연합뉴스

쿠웨이트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선언

쿠웨이트는 지난 3개월간 자국내 치명적인 H5N1 바이러스의 발생이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지난 7월 23일 OIE 규정하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고, 쿠웨이트는 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 국가로 선포했음을 밝혔다.

쿠웨이트는 지난 4월 102마리의 독수리와 2월 닭과 메추리에서 AI가 발생해 지금까지 170만 마리의 조류를 살처분 한 바 있다.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 로이터

독일
조류와 가금류에서 AI 발생

독일의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가금류에서도 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독일 방역 당국은 가금류 1천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국립 동물방역기관인 프리드리히-뢰플러 수의학연구소는 지난 7월 6일 튀링엔주 비커스도르프 인근 농가에서 폐사한 거위가 인체에도 치명적인 AI의 변종 바이러스인 H5N1형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가금류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4월 작센 주(州) 라이프치히 인근 농가의 가금류가 AI에 감염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방역 당국은 비커스도르프 반경 13㎞ 지역을 격리 구역으로 선포하고 이 지역 9개 마을의 가금류 1천여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독일 언론이 7월 7일 보도했다.

앞서 프리드리히-뢰플러 연구소는 독일 4개 주에서 AI가 발생하고 아울러 독일 국경 인근 프랑스에서도 AI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발견됨에 따라 AI 위험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 및 주 정부는

일정 지역 내에서 조류의 반입 및 반출을 금지하고 가금류 농가에 대해 실내 사육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말 바이에른주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AI 감염 사례가 발생한 직후 작센주에서 AI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조류가 발견됐다.

또한 7월 들어 튀링엔 주와 작센-안할트 주에서도 잇따라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독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프리드리히-뢰플러 연구소는 이번 주 튀링엔 주에서 153마리의 폐사한 야생조류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뢰플러 연구소는 독일에 들어온 AI 바이러스는 체코 국경을 넘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최근 칠면조 및 양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2월 북부 뤼겐섬에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돼 폐사한 야생백조가 발견된 이후 8월까지 독일 전체 16개 주 중 6개 주에서 200여건의 AI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 베를린=연합뉴스

체코
가금류 농장에서 AI 발생

체코의 가금류 농장에서 지난 6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또 다시 체코 동부 지역의 양계 농장 두 곳에서도 AI가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체코 방역 당국이 지난 7월 11일 밝혔다.

체코 방역 당국 대변인은 이들 농장에서 폐사한 가금류가 AI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체에도 치명적인 H5N1형에 감염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 농장에서 사육해온 7만1천마리의 닭을 살처분했다.

이 대변인은 AI가 새로 발생한 이들 농장은 지난 6월말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밝히고 AI 발생지역 반경 3㎞ 이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체코 방역 당국은 AI 발생지역 반경 10㎞ 이내 지역에 대해 가금류를 실내에 가두어 놓을 것을 명령하고 아울러 모든 조류의 반입 및 반출을 금지했다.

체코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AI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산 가금육 수입금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독일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지난 7월 12일 관료가 발표했다.

덧붙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즉각적으로 살아

있는 조류 및 가금육과 기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추가적인 통보가 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Agence France Presse

아랍에미레이트연합
토고 · 체고산 가금류 수입금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지난 7월 12일 WAM 뉴스매체를 통해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인 토고와 체코로부터 모든 조류와 가금 생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환경&수자원 장관인 Mohammed Saeed Al-Kindi는 이러한 조치는 걸프 인근 아랍국가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로이터

네덜란드
공항에 조류인플루엔자 수색견 배치

네덜란드 관세청이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국가에서 유입된 화물 검색을 위해 조류수색견을 배치했다고 AFP 통신이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산 셰퍼드 '보'와 벨기에산 셰퍼드 '주디'는 지난 5월부터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서 중국, 태국, 이집트, 러시아, 터키 등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지역 화물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관세청 관할 당국인 네덜란드 재무부가 밝혔다.

보와 주디는 살아 있는 조류를 포함해 조류의 사체, 털, 알 등을 냄새를 통해 색출해내고 있다. 이 같은 조류수색견은 체코에서도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세관 기록에 따르면 올들어 적발된 가공 조류 고기와 날고기가 각각 1,625kg, 203kg, 알이 24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뉴시스

休. 일상에서 슬럼프 이기기

1. 생활 속도를 늦춰라

슬럼프를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초조해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가져야 한다.

2. 운동을 하라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임으로써 심신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몸이 활발해지면 정신도 함께 개운해진다.

3. 여행을 떠나라

반복적인 일상에 변화를 주고 리듬감을 되찾기 위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슬럼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다.